

한양가

원문

실푸다 친구임내 이가사 드러보소
 엇든가사 지었난고 한양강[가]¹⁾을 지여선내
 이가사를 보시오면 한양사적 자시아리
 오백연 지낸사적 흥망성쇠 여개잇소
 이십팔왕 지[치]국한이 선불선이 모도잇소
 장할시고 우리택[태]조 놀랍도다 우리대왕
 장약도 장할시고 문필도 유여하와
 아달리 팔형제요 복력이 더욱조타
 이십의 등과하야 삼십이 못되여서
 첨음배살 무여신고 충무대장 하엿선내
 이째가 여는썤가 공양왕의 말년이라
 정포은 정성이요 권야촌는 판서로다
 황방촌는 보국이요 길야은는 주서로다

2)현대어역

슬프다 친구님네 이 가사를 들어보소
 어떤 가사를 지었는고 한양가를 지었었네
 이 가사를 보시면은 한양 사적³⁾을 자세히 알리
 오백 년 지낸 사적 흥망성쇠 여기 잇소
 이십팔왕⁴⁾ 치국⁵⁾하니 선불선⁶⁾이 모두 잇소
 장할시고 우리 태조 놀랍도다 우리 대왕
 장략⁷⁾도 장할시고 문필도 유여⁸⁾하다
 아들이 팔형제⁹⁾요 복력¹⁰⁾이 더욱 좋다
 이십 살에 등과¹¹⁾하여 삼십 살이 못 되어서
 처음 벼슬 무엇인고 충무대장¹²⁾을 하시었네
 이 때가 어느 땐가 공양왕의 말년¹³⁾이라
 정포은¹⁴⁾은 정승¹⁵⁾이요 권양촌¹⁶⁾은 판서¹⁷⁾로다
 황방촌¹⁸⁾은 보국¹⁹⁾이요 길야은²⁰⁾은 주서²¹⁾로다

1) 원문은 최대한 보이는 대로 기록하였으나, 명백한 오탃자는 이와 같이 []를 붙여 수정함.

2) 이하 현대어역 각주의 한자는 사공수의 『한양오백년가』를 참고함.

3) 事蹟. 사건의 자취.

4) 원문 후반부에 ‘옥쇠노코 등국한니 수물엿섯 인군이요 / 충승하신 그인군은 뉘기뉘기 충승인가 / 덕종원종 충승이요 진종익종 충승이라 / 시무여섯 인군중에 내친인군이 뉘기든고 / 연산주와 광해주라 인군은 그러하니’라는 대목이 있다. 즉, 26명의 왕이 등극하였으나 연산군과 광해군이 폐위된 후 복위되지 못하였고, 덕종(세조의 장자), 원종(인조의 부친), 진종(영조의 장자), 익종(헌종의 부친)이 추존되었으므로, 저자는 조선을 28명의 왕이 치국했다고 한 것임. 참고로 저자가 말하는 26명의 왕은 1대 태조부터 26대 고종까지인 것으로 보임.

5) 治國. 나라를 다스림.

6) 善不善.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7) 將略. 장수로서의 지략과 기량.

8) 有餘. 넉넉함. 남음이 있음.

9) 진안대군, 영안대군(정종), 익안대군, 회안대군, 정안대군(태종), 덕안대군, 무안대군, 의안대군.

10) 福力. 누리는 복의 힘.

11) 登科. 과거에 급제하던 일.

12) 總撫大將. 고려시대 무관의 벼슬 이름으로 추정됨. 원문 중반부에 ‘충무대장 이순신은 거북선을 모와타고’라는 대목이 있는데, 충무(忠武)는 무관에게 내리는 최고의 시호로, 고려시대에는 3명, 조선시대에는 9명이 이 시호를 받았음. 이성계는 충무의 시호를 받지 않았고 기록된 한자도 다르지만, 충무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장군에게 내려졌던 시호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제기해봄.

13) 恭讓王. 고려 제34대 국왕. 1392년까지 재위.

14) 朴隱(圃隱) 정몽주.

15) 政丞. 고려 종1품의 으뜸 벼슬. 정몽주는 1390년 수문하시중에 임명되었으며 1392년 살해당함.

16) 양촌(陽村) 권근.

17) 判書. 고려 말 정3품의 으뜸 벼슬. 권근은 예의판서를 지냄.

조정은 씩씩하나 인군이 혼우하니
 그 나라를 보존한들 그 사직을 직킬소냐
 태조대왕 거동보소 송악산 뚝피올나
 신혈사의 드러가서 글을 짓고 도라올나
 천기를 바라보고 국운얼 요량하니
 왕건티조 전한사직 사백철[칠]십 오연이라
 통두랑언 상장이요 정삼봉언 모사로다
 일조외 반정하여 슈창궁의 등국한이
 등국하신 칠연만에 태평과을 보이실세
 그새이 어는썤고 임진[신]칠월 열엿새라²²⁾
 포은을 두려하니 어는누가 과거보리

조정은 씩씩하나 임금이 혼우하니²³⁾
 그 나라를 보존한들 그 사직²⁴⁾을 지킬소냐
 태조대왕 거동 보소 송악산²⁵⁾ 높이 올라
 신혈사²⁶⁾에 들어가서 글을 짓고 돌아올라
 천기²⁷⁾를 바라보고 국운²⁸⁾을 요량하니²⁹⁾
 왕건 태조 전한 사직 사백칠십오년³⁰⁾이라
 통두란³¹⁾은 상장³²⁾이요 정삼봉³³⁾은 모사³⁴⁾로다
 일조³⁵⁾에 반정하여³⁶⁾ 수창궁³⁷⁾에 등국하니³⁸⁾
 등국하신 칠 년 만에 태평과³⁹⁾를 보이실세
 그때가 어느 땐가 임신년 칠월 십육일⁴⁰⁾이라
 포은⁴¹⁾을 두려워하니 어느 누가 과거를 보리

18) 방촌(龐村) 황희.

19) 輔國. 조선 정1품의 상계에 해당하는 품계인 대광보국승록대부. 황희는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를 지냄. 참고로 맥락상 황희가 고려 때 지냈던 벼슬의 이름이 나와야 하지만, 그가 고려 때 특진보국삼중대광의 자리에 오른 기록이 없어 저자가 조선 때의 벼슬과 혼동했을 것으로 추정함.

20) 야은(冶隱) 길재.

21) 注書. 고려 시대 내사성 또는 중서성에 속한 종칠허품 벼슬. 길재는 1389년 문하주서에 임명되었으나,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이듬해 봄 고향으로 돌아감.

22) 사공수의 『한양오백년가』에는 ‘일조에 반정하여 수창궁에 등국하니/이때가 어느때노 임신칠월 열엿셋날/등국하신 칠일만에 태평과를 보이신들’의 순서로 나와 있음. 맥락상 ‘그새’는 태조가 ‘슈창궁의 등국’한 때이므로 『한양오백년가』의 순서가 적절해보임.

23) 昏愚하다. 흐리멍덩하고 아주 어리석다.

24) 종묘와 같은 국가의 상징. 제사를 지내는 장소. 여기서는 나라의 정통성을 의미.

25)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에 위치한 산. 고려 태조 왕건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함.

26)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삼각산에 위치한 사찰. 고려 성종 때 여철이 창건하였으며 현종이 목숨을 구한 사찰로 유명함. 앞서 송악산에 오른다고 하였는데 이어서 삼각산의 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른 절일 가능성도 있음.

27)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造化)의 신비.

28) 國運. 나라의 운명.

29) 料量하다.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하다.

30) 고려 왕조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475년간 지속됨.

31) 修豆蘭. 태조와 의형제를 맺고 이씨 성을 하사받은 여진족의 장군 이지란.

32) 上將. 상급 장수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

33) 삼봉(三峯) 정도전.

34) 謀士. 남을 도와 피를 내는 사람.

35) 一朝. 하루아침.

36) 反正하다.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다. 여기서는 조선 건국을 의미함.

37) 壽寧宮. 고려시대 개경의 서소문 안에 있었던 궁궐로 조선 초까지 주요 궁궐로 활용됨. 태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즉위함.

38) 登極하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다.

39) 太平科.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하던 과거. 다만 문과방목에는 태조대 식년시 2회(1393, 1396년)를 본 기록만 남아있음.

40) 태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壬申년(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조선을 건국함. 7월 16일은 이성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새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한 날임.

41) 圃隱. 정몽주의 호.